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보행시설에 대한 탐방객 태도¹ - 어리목 구간을 중심으로 -

유기준² · 조 우^{3*} · 권태호⁴ · 조근식⁵

Users' Attitudes for the Trail Structures in Hallasan National Park, Korea¹ - In the Case Study of Eorimok -

Ki-Joon Yoo², Woo Cho^{3*}, Tae-Ho Kwon⁴, Keun-Sik Cho⁵

요 약

탐방로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탐방로 이용과 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공원 탐방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탐방로를 이용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용행태와 보행시설물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지를 방문하고 귀가하는 탐방객 138명을 대상으로 응답자 직접기입방식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어리목에 설치된 7개의 보행 시설의 양적·질적 상태에 대한 응답은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응답을 보여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각 보행시설별 경관조화성, 자원보전성, 탐방편의성 평가에서는 목재데크 시설과 목재지주의 PP로프난간 시설과 같은 친자연적 소재를 사용한 시설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철재와 같은 인공적 시설의 자연환경 지역에서의 도입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기존 철재 시설물에 대한 친자연적 소재로의 대체가 필요하다.

주요어 : 이용행태, 경관조화성, 자원보전성, 탐방편의성

ABSTRACT

For maximum utility of trails, there is a need for better knowledge of characteristics of trail use and its us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users' attitudes toward trail structures in Eorimok exploring route in Hallasan National Park managerial purpos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138 people on the way back home from their visit to the site from July to August, 2007. The geological conditions of 7 types of pedestrian trail structures were rated relatively high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The responses were noticeably positive about the natural materials used in wood deck and PP rope railings from the point of three aspects: harmony with

1 접수 3월 31일 Received on Mar. 31, 2007

2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Division of Tourism, Univ. of Sangji, Wonju(220-702), Korea(kijoony@sangji.ac.kr)

3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Division of Tourism, Univ. of Sangji, Wonju(220-702), Korea(woocho@sangji.ac.kr)

4 대구대학교 생명환경학부 Division of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 Daegu Univ., Gyongsan(712-714), Korea(foren95@daegu.ac.kr)

5 상지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Industrial Management Institute, Sangji Univ., Wonju(220-702), Korea(23041@daum.net)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nature, visitor convenience and resources conservation. It seems necessary to replace steel structures with native materials because such unnatural materials used in a natural setting are subject to visitor's resistance.

KEY WORDS : CHARACTERISTICS OF TRAIL USE, ADVANTAGE OF NATURAL LANDSCAPE, RESOURCE CONSERVATION, USER CONVENIENCE

서론

국립공원 탐방로는 탐방객을 공원내 자연환경과 연결시키는 기반시설로서 자연과 인간의 접촉체험의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 영향을 동반하기도 한다(조우와 유기준, 2007). 특히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에서 탐방로는 공원시설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산이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형태인 현실에서 탐방로는 국립공원의 대표적 탐방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갤럽의 2001년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중 연간 1회 이상 숲을 탐방하는 인구는 75%에 이르고 있으며(산림청과 생명의숲, 2004) 일반 국민 중 상당수가 취미 활동으로서 등산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2006). 특히 국립공원 탐방로는 탐방객을 공원의 자연생태계 공간으로 가장 근접하게 연결해 주는 공원 기반시설로서 탐방로 상에서 탐방객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곧바로 주변 자연생태계에 전달되어 자원훼손과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김동욱, 2006).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함께 탐방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증가된 등산인구는 국립공원에서 탐방로 이용압력의 가중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탐방로와 같은 기반시설의 부하현상으로 이어져 공원 환경자원의 훼손 및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2). 실제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등산로에서는 노면침식, 세굴, 노폭확장 등 훼손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등산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탐방로에 훼손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공원관리 주체는 탐방로 훼손원인을 분석하고 대상지의 물리적 여건, 자원의 보전 여건, 탐방객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훼손을 저감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로에서 훼손현상이 발생되면 훼손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설 도입과 확대, 기존 시설의 보완 등 주로 시설측면의 탐방로 정비가 우선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김동욱, 2007). 그러

나 탐방로에서 발생하는 훼손현상은 탐방객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상대적인 문제로서 이용주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 원천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기본이다(유기준과 권태호, 2004).

결국 국립공원 탐방로는 국립공원 이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탐방시설로서 양호한 자연환경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며 대상지 자연환경 특성에 적합한 시설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는 각종 보행 관련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물들의 자원 보전 효과나 이용편의성 등의 시설 효율성 대한 평가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의 적정성이 검증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조우와 유기준, 2007).

이에 본 연구는 국립공원 탐방로의 시설 도입 적정성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탐방객 차원의 평가결과의 국립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한라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탐방로인 어리목 구간을 대상으로 대상지 탐방로 보행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귀가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탐방로 시설 평가 틀

본 연구를 위한 평가 틀은 유기준(2001, 2005), 조우와 유기준(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모델중 감응성 평가 과정을 적용하였다(Figure 1).

유기준(2001, 2005), 조우와 유기준(2007) 평가 모델에서의 감응성 평가는 영향주체로서의 이용자 반응으로 성과(outcomes)로 특정 집단의 선호, 욕구, 가치를 만족시켜 주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이나 계획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영향 주체들의 인식(만족도 등) 조사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응성 평가로서 탐방로 이용주체인 시설 이용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느낀 시설 이용 후 감응성을 평가척도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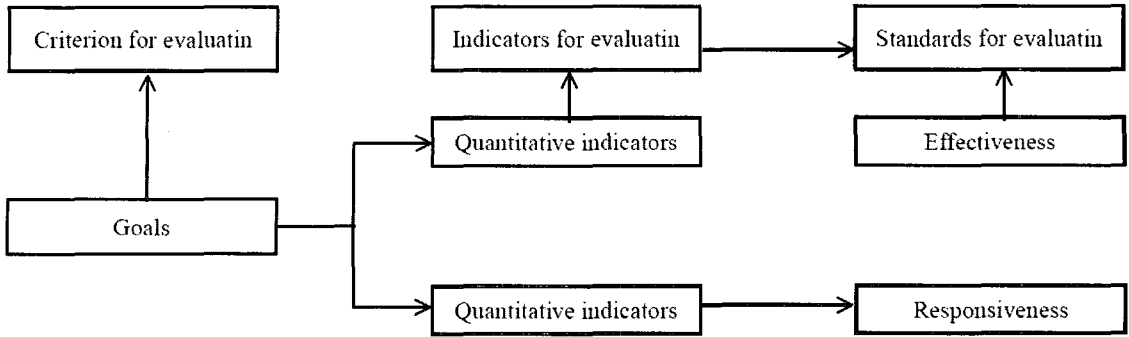


Figure 1. Evaluation Model By Yoo(2001)

2. 감응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본 연구의 감응성 평가는 각 탐방로상에 도입되어 있는 보행 시설물에 대한 경관조화성, 자원보전성, 이용편의성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3가지의 기준은 일본 환경성 자연환경국 자연환경정비과에서 사용된 자연환경지 보도정비사례의 평가기준요소(國立公園協會, 2002)와 숲길 설계 지침(오구군 등, 2005)을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적합하도록 응용하였다. 그리고 조우와 유기준(2007)이 소백산국립공원 연구에서 적용된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감응성 평가는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구간 탐방로를 이용하고 귀가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응답자 직접기입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탐방로 이용에 대한 인식과 탐방로 시설 평가 부분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탐방로 이용인식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반적 이용행태, 탐방로 상태에 대한 인식, 훼손정도 및 심각성, 만족 정도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시설물 평가는 응답자가 실제 이용한 대상 탐방로상의 유형별 시설물 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관조화성, 자원보전성, 이용편의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경관조화성은 시설물의 자연성, 형태, 선형, 재료, 색채 부분으로 구분하여 5점 리커드 척도(1점: 매우불량 ~ 5점: 매우 우수)로 측정하였다. 자원보전성은 배수, 토양침식, 탐방로 가장자리 처리 등의 적합성에 대한 지형적 요인, 주변 식생훼손 원인 차단 적합성에 대한 식생요인, 동물 서식환경 보호 적합성에 대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용편의성은 시설 및 재료 사용에 따른 보행 편리성, 통행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재료의 강도, 다양한 탐방객 특성에 대한 적합도를 묻는 보편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모두 5점 리커드 척도를 측정하였다.

총 146 매의 설문지를 회수하고 이중 유효하지 않은 8매를 폐기하고 138매를 유효표본으로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7~8월에 실시하였고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PC 1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지 탐방로 특성

한라산국립공원은 대표적인 관광목적지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서 외지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며 전국적 탐방 세력권이 형성되며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는 비교적 변형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대부분인 원시적 성격에 가까운 탐방로로 등반 활동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는 백록담을 향해 각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5개 노선이 있다. 이중 연구대상지인 어리목 구간(어리목 - 윗새오름 - 백록담)은 한라산을 오르는 탐방객 중 가장 많은 탐방객이 이용하며 정상부인 백록담까지의 구간은 탐방이 통제되고 있다. 어리목 구간의 탐방객 집중현상은 주변 식생 파괴, 셋길 생성, 나지 확대 등 탐방객에 의한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으며(김상우, 1999) 탐방객 훼손 저감을 위해 노면정비 공사가 진행되어 돌갈기, 목재데크, 목재계단, 난간 등의 7개 유형의 보행시설이 도입되었다 (Figure 2).

2.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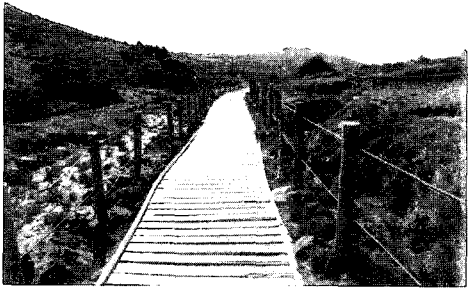
어리목 탐방로 보행시설에 대한 인식 조사 현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38명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62.3%, 여자가 36.8%로 남자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Stone Pa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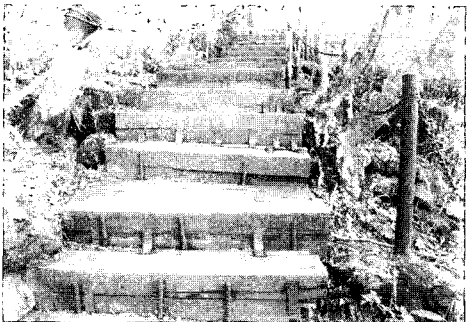
Stone Paving(Mixed with gravel)



Wood D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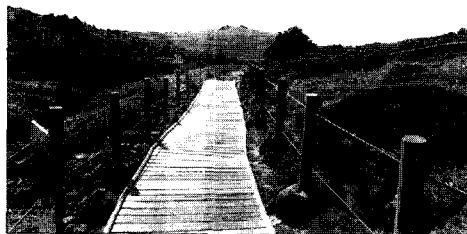
Wood Steps(Mixed with gravel)



Steel Guardrail



PP Rope Guardrail (Steel)



PP Rope Guardrail (Wood)

Figure 2. Facility Types

Table 1. Soci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tem	Category and frequency(%)
Gender	Male(63.2), Female(36.8)
Age	18-29(24.8), 30-39(29.2), 40-49(29.9), 50-59(12.5), Over 60(3.6)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4.4), High school(21.2), University(55.5) More than university(19.1)
Occupation	Housewives(11.7), Office worker(15.3), Independent business(6.6), Professional and technical jobs(11.7), Public service personnel(21.9), Agriculture · forestry · fishery industries(4.4), Students(19.0), etc.(9.5)
Residential area	Seoul(8.7), Daegu(2.2), Gwangju(0.7) Ulsan(0.7), Pusan(6.5), Daejeon(5.8), Gyeonggi(12.1), Chung-buk(7.2), Chungnam(0.7). Gyeon-buk(2.9), Gyeon-nam(2.1, Jeon-buk(1.4), Gangwon(2.1)

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29.2%, 30대 28.4%, 20대 21.2%로 나타나 주로 20대 ~ 40대의 방문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전체 응답자의 74.5%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어 고학력 추세를 보였으며 직업별 분포는 공무원(21.9%), 학생(19.0%), 회사원(15.3%), 주부(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별 특성은 제주도 거주자가 43.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전국적 방문 세력권을 가진 제주도의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3. 일반적 이용행태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탐방로 방문경험은 응답자의 57.2%가 처음 방문자였으며(Figure 3)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방문횟수는 일년에 2~3회 방문자가 50.6%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탐방로 방문목적은(Figure 3) 등산 등의 휴양활동이 24.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자연경관 감상과 건강 유지 목적의 방문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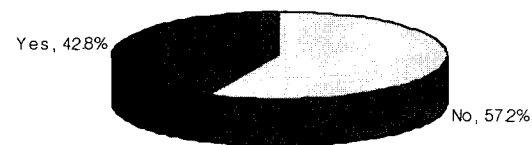


Figure 3. Visiting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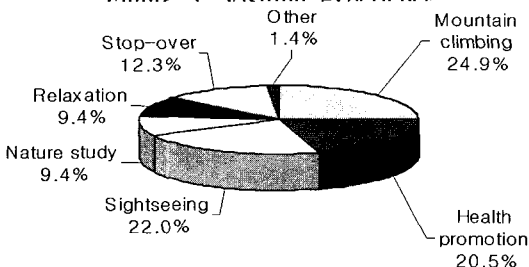


Figure 4. Visiting purpose

율이 각각 21.9%와 20.4%(Figure 4)로 나타나 최근의 휴양 활동 패턴을 반영한 결과로(월간마운틴, 2003; 산림청과 생명외숲, 2004; 산림청, 2006)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의 동반자 유형을 살펴보면, 타 국립공원에 서의 연구결과(조우와 유기준, 2007; 국립공원관리공단, 2004)와는 다소 다르게 직장동료 동반 유형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친구(23.9%), 가족동반(17.4%), 단체관광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5). 동반자 수는 2 ~ 3인 27.4%, 4 ~ 6인 12.6%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동반 규모로 볼 수 있는 20인 이상의 단체 동반 비율이 26.7%를 차지하여 다른 산악형 국립공원 탐방형태와 차이를 보였다(김용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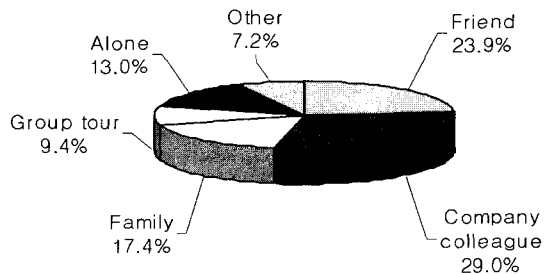


Figure 5. Visitor group ty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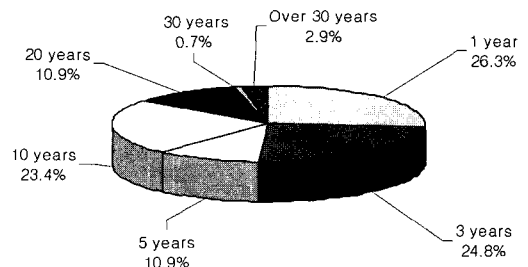


Figure 6. Mountain climbing career

1993; 김용근 등 1996; 김용근과 최성식, 1994; 김용근 등, 1996; 유기준과 김용근, 2000; 유기준 등, 2001).

국립공원의 이용에 있어 초보자나 미숙련 이용자의 휴양활동은 자원 및 시설이용에 있어 야영의 흔적을 남기거나 오물 소각 및 매립 등의 훼손을 야기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환경부, 2002). 그러므로 효율적인 탐방객 관리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등산경력과 기술수준의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유기준과 권태호, 2004).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를 방문한 응답자들의 등산 경력은 대부분의 응답자가(73.7%)가 3년 이상의 등산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적 초보 수준인 1년이내의 등산경력을 가진 응답자 비율도 26.3%로 조사되었다(Figure 6).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62.8%) 자신들의 등반기술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탐방로 시설 상태 및 훼손에 대한 인식

어리목 구간 탐방로상 보행시설에 대한 양적·질적 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시설의 양적·질적 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7과 Figure 8). 또한 탐방로 훼손 정도를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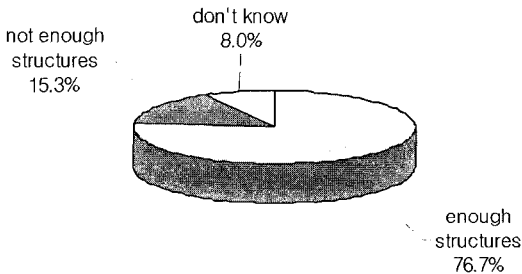


Figure 7. Visitor attitude for trail quantitative con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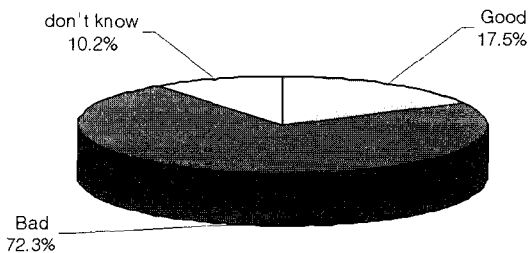


Figure 8. Visitor attitude for trail qualities condition

리커드 척도(1: 훼손이 전혀 없다 - 5: 훼손 정도가 매우 심하다)로 측정된 결과(Figure 9) 응답자의 67.4%가 탐방로 훼손이 없는 편으로 평가하였으며 훼손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이용객 자신들의 부주의를 지적하였으며(36.0%) 이와 함께 관리소홀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20.0%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탐방로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Figure 10)은 5점 척도상 3.76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각 보행시설별 평가

어리목 구간 탐방로의 7개 보행시설에 대한 탐방객들의 평가는 대부분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응답 경향(5점 척도상 3점 이상)이 나타났으며 요약된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돌갈기 시설은 경관조화 측면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으며(3.61), 주변 지형과의 조화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3.64점). 반면에 자원보전성과 탐방편의성은 각각 3.50점, 3.45점으로 경관조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혼합형 돌갈기 시설은 돌갈기 시설과 마찬가지로 경관조화 측면에서 3.57점으로 자원보전성(3.49)과 탐방편의성(3.4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역시 경관조화 항목 중에서도 주변 지형과 어울리는 선형 유지 항목에의 응답이 3.63으로 가장 높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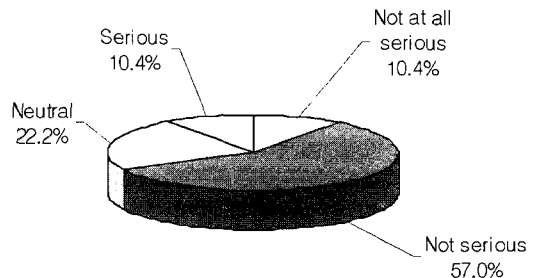


Figure 9. Visitor attitude for trail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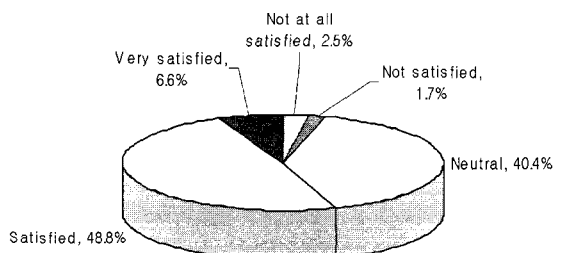


Figure 10. Satisfaction level

Table 2. Evaluation of visitor responsiveness for trail walking facilities

Attribute		Stone paving	Stone paving(M)	Wood deck	Wood steps(M)	Steel guardrail	PP rope guardrail(S)	PP rope guardrail(W)
Advantages of natural landscape	Naturalness	3.62	3.55	3.75	3.35	3.01	3.12	3.72
	Type	3.57	3.55	3.82	3.32	3.08	3.25	3.75
	Line shape	3.64	3.63	3.74	3.36	3.09	3.26	3.71
	Material	3.62	3.59	3.76	3.39	3.07	3.14	3.69
	Color	3.63	3.55	3.74	3.40	3.12	3.21	3.74
	Mean	3.61	3.57	3.76	3.36	3.07	3.19	3.72
Resource conservation	Topography	3.47	3.54	3.74	3.31	3.16	3.28	3.68
	Vegetation	3.53	3.49	3.62	3.37	3.24	3.29	3.68
	Animal	3.50	3.44	3.54	3.35	3.23	3.28	3.64
	Mean	3.50	3.49	3.63	3.34	3.21	3.28	3.66
User convenience	Walking convenience	3.48	3.43	3.87	3.21	3.18	3.21	3.80
	Tolerance level	3.45	3.40	3.80	3.31	3.26	3.25	3.77
	Universality	3.44	3.41	3.76	3.27	3.24	3.21	3.77
	Mean	3.45	3.41	3.81	3.26	3.22	3.22	3.78

* 1: Very bad - 5: Very good M: Mixed, S: Steel, W: Wood

나타났다. 이는 자연적 재료의 사용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매우 긍정적인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재데크는 탐방편의성과 경관조화성 측면에서 각각 3.81과 3.76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자원보전성은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지만 다른 두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3.63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특히 목재시설의 탐방편의성의 평균값이 3.81로 전체 시설들의 각 요인들에 대한 평균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보행편의성이 3.87점으로 나타나 탐방객에게 보행 편의성이 매우 뛰어난 시설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관조화 부분에서는 시각적 안정성 효과가 매우 우수한 시설로 평가되었다(3.82). 이러한 결과는 목재데크 시설이 탐방객 시각에서 보행의 편리성도 제공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보행시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돌과 목재를 함께 사용한 혼합형 목재계단의 경우, 경관조화 측면에서 3.36의 평균값으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목재데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인 보행의 불편함과 시각적 안정감 결여 등에 대한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철재난간 시설은 경관조화, 자원보전, 탐방편의 요인에서 각각 3.07, 3.21, 3.22의 평균값을 보여 다른 시설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 수준의 시설로 평가되었다. 특히 경관조화 요인의 경우 전체 시설들의

각 요인들에 대한 평균값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자연환경 지역에서 철재 소재 사용이 자연 소재 사용에 비해 부정적 시각적 효과를 주 것으로 사료된다.

PP로프난간 철재지주 시설은 자원보전 측면에서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식생훼손 원인에 대한 차단 적합성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PP로프난간에서 철재지주가 아닌 목재 지주를 사용한 시설물은 경관조화, 자원보전, 탐방편의 요인에서 각각 3.72, 3.66, 3.78의 평균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소재 선택에 있어 보다 자연적인 소재의 도입이 탐방객에게 긍정적이라는 것을 뒷받침 한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4; 조우와 유기준, 2007).

각 시설들의 세 요인들의 세부 항목별 평균값을 살펴 보면, 경관조화성에서는 목재데크, PP로프난간 목재지주, 돌갈기, 돌갈기 혼합형, 목재계단 혼합형, PP로프난간 철재지주, 철재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보전성 부분에서는 PP로프난간 목재지주 시설이 3.66으로 가장 효과적 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목재데크, 돌갈기 시설, 돌갈기 혼합형 시설, 목재계단 혼합형 시설, PP로프난간 철재지주 시설, 철재난간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탐방편의성에 있어서는 목재데크 시설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철재난간 시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하여 보면 목재데크와 목재지주를 사용한 PP로 프난간 시설이 다른 시설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철재를 사용한 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목재나 돌을 사용한 시설물들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본 연구는 국립공원 탐방로 시설의 도입 적정성 평가의 필요성에 따른 탐방객차원의 평가를 통해 국립공원 탐방로 시설물 설치 여부와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라산 국립공원 어리목 구간 탐방로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여 보행 시설에 대한 감응성(responsibility)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대상 시설은 연구대상지에 설치되어 있는 돌 깔기, 돌 깔기 혼합형, 목재데크, 목재계단 혼합형, 철재난간, PP로프난간 철재지주, PP로프난간 목재지주의 7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탐방객은 제주 지역 거주민 방문 비율이 높았으나 전국적 탐방객력권 특성을 나타냈다. 등산 등의 휴양 활동, 자연경관 감상, 건강 유지 목적의 방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의 휴양 활동 패턴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어리목에 설치된 7개의 보행 시설에 양적·질적 상태에 대한 응답은 대체적으로 보통이상의 응답을 보여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각의 보행시설 별 평가에서는 목재데크 시설과 목재지주의 PP로프난간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 탐방객 시각에서는 목재나 돌 등의 친자연적 소재를 사용한 시설물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철재와 같은 인공적 시설의 환경지역에의 도입은 주변경관과의 조화에 저항감을 보이는 부정적인 시각적 효과가 나타나 향후 기존 철재 시설물에 대한 소재의 대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친자연적 소재의 사용을 통한 주변경관과의 조화효과를 가져올지라도 탐방편의성에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적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탐방로상의 보행시설에 대한 탐방객 평가를 주 내용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탐방객 태도 관련 정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과정이 이용주체의 감응성 평가를 위주로 전개되었으나 향후 전문가 집단과의 교차 평가를 통한 자료의

확보와 사업시행에 대한 효과성 평가도 병행되어야만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문헌

- 국립공원관리공단(2002) 국립공원 탐방로관리 종합계획.
국립공원관리공단(2004) 국립공원 탐방로상 시설의 자원보전성 제고에 관한 연구. 68쪽.
국립공원관리공단(2006) www.knps.or.kr
김동욱(2006) 생활권 등산로의 이용자 인식과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5쪽.
김상우(1999) 한라산국립공원 자원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8쪽.
김용근(1993) 소백산국립공원 이용자행태 조사. 응용생태연구 6(2): 226-227.
김용근, 최성식(1994) 덕유산국립공원 이용자행태 조사. 응용생태연구 7(2): 223-227.
김용근, 최성식(1995) 주왕산국립공원 이용자행태 조사. 응용생태연구 8(2): 164.
김용근, 최성식, 조중현(1996) 오대산국립공원 이용자행태 조사. 환경생태학회지 9(2): 189-196.
산림청, 생명의숲 국민운동(2004) 등산로 훼손유형별 생태적 정비요령 - 숲길 정비 매뉴얼. 188쪽.
산림청(2006) 내부자료
오구균, 권태호, 유기준, 이준우, 최송현(2005) 숲길 정비매뉴얼. 수문출판사, 230쪽.
유기준, 김용근(2000) 지리산국립공원 이용객 행태 및 이용관리에 대한 중요도-성취도분석. 환경생태학회지 13(4): 367-374.
유기준, 김동필, 김용근(2001) 계룡산국립공원에서의 이용객 행태와 관리속성에 대한 이용객태도. 환경생태학회지 14(4): 324-331.
유기준(2001) 관광개발 관련 계획의 평가에 관한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산업경영연구(11): 119-140.
유기준, 권태호(2004)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에 대한 이용객 인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8(4): 437-445.
유기준(2005)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사업평가보고서, 28쪽.
월간마운틴(2003) 월간마운틴 11월호 - 주 5일 근무에 따른 야외생활패턴 변화 -. 180쪽.
조우, 유기준(2007) 소백산국립공원 탐방로 보행시설에 대한 탐방객과 전문가 평가에 관한연구: 회방사~연화봉 구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1(1): 13-21.
환경부(2002) 공원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55쪽.
國立公園協會(2002)自然景觀地によけ歩道計劃整備高度化技術の檢討調査託報告書.